할부금 못갚아…수입차 경매물 늘어난다

올해 광주 50건 등 전국 1357건…전년보다 10% 증가

금리 인상시 부담 가중…할부제 불합리·리스 만연 원인

수입차 등 고급차종의 법원 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할부나 리스 등 무리한 구매가 가계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법원 경매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전국에 법원경매로 나온 수입차는 광주 지역 50여대를 포함해 총 1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9건 보다 10%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산차 경매물건 증가율이 2.9%인 것과 대조적이다.

자동차 경매 물건은 일반적으로 할부나 리스 등으로 차량을 구입후 3개월 정도 관련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압돼 진행된다. 특히 수입차 경매 건수의 증가는 경기 침체와 함께 자동차 할부 금융 활성화로 무리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젊음이들이 늘면서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수입차 경매 물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차 판매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차보다 비교적 유예 할부 등 빚을 안고 차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형 수입차 업체들은 보통 자사의 파이낸스 업체를 끼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길 권유한다. 업계에서는 할부 금리가 높아 차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할부대출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보통 파이낸스 업체는 수입차 업체 본사가 지분 100%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본사가 배당 수익을 받아가기 때문에 파이낸스사 이익이 많이 남도록 유예 할부나 리스 등을 권유한다.

각종 유예 할부 상품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예 할부는 차값의 일부만 내고 구입해 일정 금액을 매달 내면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차값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서는 차량 가격을 50% 이상씩 업체가 보장해주는 곳이 많아 그나마 상황은 나아졌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자금력이 약한 젊은 고객들이 만기시 값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차량도 판매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수입차 업체들이 선수금을 받지 않거나 유예 할부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차종들은 보통 시장에서 잘 안팔리는 차들이다 보니 되팔기도 힘든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견디질 모르지만 향후 금리 상승기가 되면 장기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예 할부나 리스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값도 더 비쌀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상환이 돌아올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경매 물량이 되레 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3670만원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는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10차 조성금 367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문화방송 사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최영준 문화방송사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동욱 하이트진로 상무 등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정(情)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광주에서 판매되는 하이트진로 제품에 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이미 2012년 11월 2억원의 조성금을 완료하였고 2013년부터 2차 3억원의 조성금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동안 9차에 걸쳐 2억여원을 전달했고 이날 3670만원을 포함 누적기탁금이 2억3652만6380에 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850억 지원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약 3조5850억 원을 마련해 구조조정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시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 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자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위한 수출·창업 분야 지원 ▲민간과 정부 사업 간 연계지원 강화와 현장중심 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쓰일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은 전남과 경남 등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5개 조선업 밀집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재창업과 사업전환 활성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 변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해 기업의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금 금리를 우대하는 한편,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 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매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자금 지원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지원을 확대한 만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고도화한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기존 1250억원에서 내년 175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수출 사업화 자금(500억원 규모)도 신설한다.

정책자금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효성 이웃돕기 10억원 기탁

효성은 21일 조현준 사장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AI(조류 인플루엔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여러분과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은 中企 특별자금 150억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1일 설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원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7.96 (-3.98)
- 금리 (국고채 3년) 1.69% (-0.03)
- 코스닥 618.63 (+0.64)
- 환율 (USD) 1193.90원 (+0.50)

자동차보험료 상승세 꺾이나

삼성화재 인하…31일부터 개인용 2.7%·업무용 1.6%↓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전격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상 행렬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업계의 인상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2.7%, 업무용은 1.6%, 영업용은 0.4%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 내역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대인·무보험차량 사고 요율이 올라가고, 나머지 대인·대물·자기신체·자기차량 손해 담보는 모두 보험료가 낮아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안정화되는 손익 개선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2.5% 올린 데 따른 효과와 감독 당국의 외제 차 대차료 기준 변경,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 운용 등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손익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선두인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하에 나서면서, 업계 전체의 추세도 뒤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손보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 차례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에도 악사손보, 흥국화재 등의 중소형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인상 움직임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들어 다소 호전되는 추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월을 기준으로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년 사이에 2~8%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졌다.

삼성화재의 손해율이 올해 9월 78.5%로 지난해 9월의 80.5%보다 2%포인트 내렸고, 현대해상의 손해율도 같은 기간 87.8%에서 80.7%로 낮아졌다.

동부화재(86.6%→80.7%), KB손해보험(86.4%→80.0%), 메리츠화재(91.3%→83.1%) 등의 손해율도 낮아졌다.

다만 중소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대형사들의 손해율도 적정 수준으로 알려진 78%를 상회하는 만큼 보험료 인하 흐름이 업계 전체로 퍼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아직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삼성 '에드워시 슬림' 러시아 기술혁신상

삼성전자 세탁기 '애드워시 슬림'이 최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 이노베이션 타임(Russia Innovation Time) 2016'에서 '올해의 기술혁신상(Technical Innovation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삼성전자가 21일 밝혔다.

러시아 이노베이션 타임은 현지 대표적인 혁신사례 시상식 중 하나로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가 후원하고 비영리단체 소셜 프로젝트 그룹이 주관한다.

삼성 애드워시 슬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코 버블' 기술로 친환경 제품 인정을 받아 환경자원 부문에서 올해 신설된 기술혁신상을 최초로 수상했다.

에코 버블은 세제를 충분히 녹여서 만든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을 세탁물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침투시켜 세탁력을 높이는 동시에 옷감손상을 줄이고 세탁시간을 단축해 에너지 절감력을 높이는 삼성의 독자 기술이다.

2015년 9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애드워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성 드럼세탁기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싱가포르 대통령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요 매체 평가에서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